

로컬뉴스

김제시, 규제개혁 추진
실적 인센티브 확대 지시

김제시(시장 이진식)가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하반기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규제개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대통령의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지시에 따른 「행정부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연계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속도를 붙여 성공적으로 개혁을 확대하는데 힘을 싣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불합리한 법령 발령 및 조례 개선,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유치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 도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근무승진 및 대우공무원 수당 기간 단축, 특별승급, 국내외 연수 선발 우대 등 다각적으로 인센티브 방안이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2014 ~ 2015년 「행정부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고세 2억원 등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그간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성적 및 성과상여금 가점, 특별승급 등을 부여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정읍시가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수질 개선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착공한 정읍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정읍시 신외면 등 모두 7개면(동) 32개 마을이다. 시는 모두 273억원의 투입해 2017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전체 공정율은 29%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분류식 오수관 42.68km를 새로 설치하고 1천430여 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한다. 공사에 따른 계획 하수 처리량은 1일 평균 1,584m³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 7천300여명의 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정읍처리구역(1단계) 사업으로 덕천면과 정우면, 농소동 지역의 하수관로 40km를 지난 7월말 마친 바 있다.

시는 "2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은 물론 그간 도시환경을 저해해 온 개인 정화조 폐쇄로 주민 보건위생이 향상되고,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경찰서, 112총력대응 및 음주단속 요령 순회교육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3층 대강당에서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112총력대응·음주단속 요령에 대한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방경찰청 동료강사 강태수 경감이 음주단속 시 현장경찰관들의 대처법과 요령을 노강욱 경위가 '112초동조치와 총력대응을 위한 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경찰이 음주단속과 112신고를 총동원해 있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 정말 와 닿았고, 이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c·c하 노파곶 도드·사 전국 마을 비추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전국 대회는 전국의 마을 만들기 주체들의 학습과 교류의 장이 됐다

‘정읍, 전국의 마을을 비추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성료... 활동가 등 5천여명의 학습과 교류의 장

정읍에서 열린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이하 전국대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일정을 마쳤다. ‘c·c하 노파곶 도드·사 전국 마을 비추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전국 대회는 전국의 마을 만들기 주체들의 학습과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에는 마을 만들기 관련 전국의 활동가와 연구자, 지원기관, 공무원 등 5천여명이 참가했다. 대회는 다양한 사례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5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정기회의와 정읍마을축제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정읍지역 마을축제인 ‘솔티모시 달빛잔치’와 ‘원오봉 마을음악회’, ‘공동 마을축제’를 비롯해 ‘샘고을(야)한 야시장, 전국살미야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열려 색다른 볼거리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특히 마을탐방과 역사탐방도 병행, 정읍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또한 800여명의 활동가들이 입암면 대흥마을 등 40여개 마을에서 마을축제를 이용, 대회의 의의를 더했는데 마을 숙박은 정읍시의 마을 만들기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우수한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이밖에도 마을만들기의 실천과제를 탐색하고 고민해보는 마을대토론회, 건강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고민과 상호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모색하고자 15개 섹션으로 진행된 기획컨퍼런스도 청년광장, 마을만들기 활동가 교류회, 마을전시 및 체험마당, 청년전시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1일 정읍시문화관광 특설무대에서 열린 전국대회 개막식은 송해진 전북도지사, 열태영 수원시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천500명의 전국 마을주인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제시 정읍시장은 “이번 전국대회가 마을만들기의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회를 계기로 마을만들기가 건설할 기를 속에서 전국으로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음 대회는 전북 진안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무지 무단이탈과 음주운전, 도박 등 복무규정 미준수 행위와 추싹질 관련하여 금품수수, 항명제발 등 도덕성, 청렴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지휘, 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엄중분책하고,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해상 경계강화가 발령됨에 따라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체계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활동 ▲우박 한 포구 해상차단 유지 실태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성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은 “추석 전후에 복무기강을 바로 잡아 깨끗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엄격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추석절 평온한 해상차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추석 앞두고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교통표지판·차선 도색·시선 유도봉·신호등 등이 대상

정읍시는 오는 9일까지를 ‘추석맞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정읍지역 관할 구역 내 국도 71.3km, 지방도 43.7km, 시군도 297.5km 등 총 412.5km이며, 점검시설물은 교통표지판과 차선 도색, 시선 유도봉과 신호등이다.

일제 정비를 통해 훼손 또는 파손된 표지판과 시선 유도봉을 정비하고 시인성이 부족한 차방 신호등을 교체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구간에 표지판과 안전 시설물을 보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에 초점을 맞춰 점

검·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휴 기간 비상근무조와 긴급 복구반도 운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안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편안하고 깨끗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추석성묘객 맞이 공동묘지 정비

김제 교월동, 입석동·월봉동·연정동 등 묘역 정리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입석동, 월봉동, 연정동, 신덕동 등 4곳의 공동묘지를 정비했다. 이번 공동묘지 일제정비는 추석을 대비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고향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성묘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묘를 마칠 수 있도록 묘역은 물론 주변 도로변까지 세심하게 정리했다.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과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공동묘지 진입로와 주변 도로변의 잡목을 제거하고 묘역주변에 대한 제조작업과 돌보는 후순이 없는 무연묘묘에 대한 별초작업까지 조성을 찾아올 성묘객의 심정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강해남 사무장은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 고향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해경,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나서

16일까지 특별감찰 활동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는 공직기강이 흐트러질 것을 대비해 공직기강 확립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금품수수와 각종 불·탈법 행위 등을 근절하고 해양사고를 미리 방지하려고 공직기강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 김제우체국 방문 격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1일 오후 5시 김제우체국(국장 홍동호)을 방문하여 추석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하고 있는 직배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덕 본부장은 “추석 우편물 특별처리기간 운영에 따라 선물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직배원들이 배달시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관서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우체국은 오는 9월 13일까지 13일간을 ‘추석 우편물 특별처리기간’으로 정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틈새 농업으로 역대 수입

30여가지 채소 생산한 성덕면 조효동 씨

최근 농업·농촌은 FTA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져 농업환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극심한 폭염과 지속적인 가뭄 등으로 채소류 등의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각 가정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성덕면(면장 신형순)원일에서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역대농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성덕면은 수도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요즘은 많은 농가에서는 충분한 관계시설로 가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벼농사에 몰두해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수확 전에 벌써 부터 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석동 마을에 거주하는 농업인 조효동씨는 각종 양념채소 및 쌈 채소 등 30여가지를 재배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로컬푸드와 농협하네스, 서울 등지에 공급하는 라마다로 눈코 뜰 새가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 짧지만 한다.

조씨는 10여년전 도시에서 제빵점을 운영하다 사업을 정리하고 귀농하여 불철주야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한 틈새 농업으로 연간 1억원이상(조수입)을 올려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한 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8월31일에는 익산시 금마농협 직육면체에서 80여명이 조씨의 농장에 방문하여 농산물 생산과정 등을 눈으로 보고 성공 비결을 배우고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이날 조씨는 농장 방문을 마친 후 방문객을 대상으로 동강제농협 로컬푸드 매장 교육장에서 ‘농산물 재배방법을 위한 농산물 출하 요령 및 경험사례’를 전달하는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비싼 가운데에도 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신형순 성덕면장은 “향후에도 꿈이 있는 농촌을 위해 지속적인 농정시책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기반조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아름다운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어르신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나눔과 섬김으로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건강대학 프로그램의 동기를 부여토록 했다.

김제시, 시민건강대학 하반기 입학식

어르신들 50여명 참석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지난 2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건강대학 입학식을 보건소 1층 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시민건강대학은 9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2주에 걸쳐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한다. 리더십, 대인관계능력 UP, 문제해결능력, 나눔의리더십 스트레스 Down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나눔의리더십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따른 수준높고 가치있는 노후의 삶을 영위하도록 한 총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라고 추진하는 시민건강대학이다.

하반기는 그동안 경험자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집한 결과 접수 첫날에 마감

이 되었는데, 김제시어르신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나눔과 섬김으로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토록 하고자 한다. “시민건강대학 입학생 여러분들이 시민건강대학을 통하여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개개인의 가정에도 활력이 넘쳐 가정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워서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나아가 우리 이웃의 건강증진에도 어르신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래만 김제시보건소장은 언제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치아래 시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소방서, 산림인접지역·논·밭 소각 시 신고 당부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내년부터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및 논, 밭 소각으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의 소각행위 등 화재로 인한 민한 행위를 할 경우엔 반드시 119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통계를 살펴

보면 산불·들불 화재가 312건 그리고 오인출동은 2,705건이나 발생하였다. 김일선 서장은 “산림인접지역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인신고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어려워진다”며 “소각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119 또는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